

권력론의 새로운 접근

— 미셸 푸코의 Power/Knowledge론을 중심으로 —

장 원 석*

목 차

- I. 서 론
- II. 전통적 권력론의 재검토
 - 1. S.Lukes의 분석
 - 2. 푸코의 문제제기
- III. 푸코의 Power/Knowledge론
 - 1. Power/Knowledge론의 방법론적 기초
 - 2. Power/Knowledge론의 의미내용
- IV. Power/Knowledge론 분석의 사례연구
 - 1. 형벌 제도
 - 2. 성의 역사
- V. 푸코 이론의 평가

I. 서 론

민주화와 정치발전은 국가권력과 헌법체제에만 관련된 문제인가?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적인 노력이 행해짐 없이 국가권력의 변경만을 문제삼은 전략은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전통적인 권력개념의 유용성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이른바 해체주의¹⁾의 전략을 시도한 미셸 푸코의 새로운 권력이론은 현대역사가 보여주는 정치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이론자원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 사범대학 조교수

- 1) 해체주의란 포괄적이며 통일된 이론체계의 수립을 지향해 온 서구의 형이상학적 전통을 비판하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새로운 철학사조를 말한다.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그 대표적 인물이며 그의 저서 *De la Grammatologie*에 구체적인 전략이 잘 소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광래(편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서울: 교보문고, 1980) 참조.

1968년 프랑스 5월혁명²⁾은 관찰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제공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푸코의 경우 그것은 특히 권력현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상적인 삶의 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진 투쟁과 실패의 경험은 푸코로 하여금 현대권력의 본질문제를 새롭게 음미하도록 하였다. 푸코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마르크스적 전통으로 대별되는 기존의 권력론 논의를 모두 거부하고 power/knowledge 혹은 disciplinary power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현대권력의 본질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는 권력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고 현대권력의 본질을 권력관계의 다원화, 권력과 지식의 양립 가능성, 권력현상의 자율성, 권력의 신체집중화 경향등으로 파악하였다. 푸코 권력론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일련의 변화와 작금의 동구사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시사적일 수 있다. 먼저 전통적 권력론 논의를 검토한 후 푸코의 문제제기와 power/knowledge론에 의한 새로운 접근의 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통적 권력론의 재검토

1. S. Lukes의 분석

기존의 권력론 논의를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 S. Lukes는 다원주의, 행태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과거의 연구경향을 비판하고 3차원적(3-dimensional) 연구를 주장하였다.³⁾ 권력에 대한 베버의 고전적 정의는 권력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악하였다. 베버적인 전통에 입각해 있는 다원주의자들의 권력론은—예를 들어 R. Dahl의 경우—분석의 초점을 정책결정과정에 맞추어 왔다.⁴⁾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통치 elite론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힘을 행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하였고 이것이야말로 권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R. Dahl의 이론은 경험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비실증적 권력관계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력의 범위를 한정시킨 데 특징이 있다. 권력관계의 논의가 보다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관찰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2) 프랑스의 1968년 5월 혁명은 한때 1871년 파리 코뮌의 부활을 연상케 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줌으로서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문제를 재검토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5월 혁명이 현대 프랑스 지성사에 미친 영향을 잘 정리하고 있는 글로서 M. Foster, *Existential Marxism in Postwar F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7), 제9장, 'Intellectuals and May 1968'을 참조할 것.

3) S. Lukes,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cmillan, 1974), p.9.

4) R. Dahl, "A Critique of The Ruling Elite Model" in R. Bell(ed.), *Political Power* (New York: Free Press, 1969), pp.36~41 참조.

라 할지라도 정책결정과정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면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의사와 정책추진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력관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행해진 뉴 헤이븐(New Haven) 지역에 대한 Dahl의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의 이슈에 따라 분권화되어 있으며 잠재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지도자들이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대해 정치학자 바크라크(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정책결정과정 이전에 행해지는 문제제기의 사전봉쇄가능성을 지적한다.⁵⁾ 이슈의 선택자체가 의도적인 비정책결정과정(non-decision making process)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슈들이 어떻게 채택되었는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권력관계를 알 수 없다. 권력의 속성은 정책결정과정 이전의 단계에서 안전한 이슈를 택하게 하고 위험한 이슈를 무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잠재적 갈등의 은폐과정을 동시에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의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S. Lukes는 바크라크와 바라츠가 제시한 권력모델이 권력주체의 의도만을 문제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구체적이며 관찰가능한 갈등만을 문제삼는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것은 다원주의의 협소한 시각을 뛰어넘으려 했지만 다원주의 권력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S. Lukes가 주장하는 권력의 3차원적 분석은 개인의 의사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와 정치체계가 만들어 내는 거시적 권력관계를 문제삼는다.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권력관계이다. 우리의 사고와 인식과정은 일련의 구조적이며 비인격적 기제에 의해—예를 들면 사회화과정의 경우처럼—이미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의 3차원적 분석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지각하지 못하는 객관적 이익의 존재를 문제삼으려 한다. 바크라크와 바라츠류의 2차원적 분석은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가능성만을 말하려 하였지 객관적 이익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즉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객관적 이익의 존재를 권력관계로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⁶⁾ S. Lukes는 이러한 의미에서 3차원적 혹은 급진적 분석시각(radical view)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것은 프랑크푸르트학파류의 이데올로기 비판(넓은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⁷⁾ 그러나 Lukes가 주장하는 객관적 이익의 권력 관계는 누가, 어떻게 객관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세계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와 당위에 관

5) P. Bachrach and M.S. Baratz, "Decision and Nondecision: An Analytical Framework" in R. Bell(ed), Political Power, pp.100~109.

Id, "Two Faces of Power" in R. Bell(ed), Political Power, pp.94~99 참조.

6) S. Lukes, op. cit., pp.21~25.

7) 푸코와 Lukes,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권력론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를 행한 논문으로서 D.C. Hoy, "Power, Regression, Progress: Foucault, Lukes, and Frankfurt School," in D.C.Hoy(ed.), Foucault: A Critical Reader(New York: Basilblackwell, 1986) 참조.

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은 유물사관의 토대, 상부구조론에 입각하여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집행위원회로 간주하였고 권력의 본질을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영속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아 권력의 계급적, 억압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상부구조로서 국가의 성격을 힘에 의한 계급지배로 단순화시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완고한 논리는 더 이상의 정치이론을 모색하지 아니하였고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전개에 의하여 비로소 몇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시도되었다.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이 물리적 강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합의와 정당화 기제에 힘입고 있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 행해졌다.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에 관한 논의는 마르크스가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하고 계급간의 갈등을 증화시키는 일련의 지적 활동, 도덕적, 문화적 주도권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의 부르주아지가 대혁명 이전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 대공세를 통하여 귀족계급의 이념적 토대를 허물었듯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대항문화의 창출과 특히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s)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⁸⁾

둘째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이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보여주는 보다 세련된 설명방식을 제공하였다.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으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도모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적 메카니즘이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따름이다.⁹⁾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최종심급에서의 경제우위를 인정함으로써 경제결정론적인 한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나 행위주체가 아닌 구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설명방식을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보다 수준높은 논의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2) 푸코의 문제제기

푸코에 의하면 자유주의 전통은 권력현상을 계약론적 시각에서 해석하여 헌법, 주권, 제도등의 개념을 통한 정당한 금지를 강조해왔다. 또한 마르크스적 전통은 권력현상을 국가기구에 의한 억압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푸코에 의하면 양자는 모두 -Lukes의 분류에 의할 때 1,2차원적 분석이나 3차원적 분석 모두-문제가 있다.

8) D. McLellan, 마르크스주의 논쟁사, 안택원譯(서울: 인간사랑, 1986), pp.252~270 참조. 유기적 지식인이란 사회계급과 연결되어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대변하는 지식인을 말한다.

9) 이 문제에 관하여 도구주의자 밀리반트(Miliband)와 구조주의자 풀란차스(Poulantzas)가 New Left Review지를 통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Nicos Poulantzas,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No.3 (August 1981) pp.303~325. Ralph Miliband, "The Capitalist State: A Reply to Nicos Poulantzas," New Left Review, No.59(1970) pp.53~60. Id., "Poulantzas and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No.82(1973) pp.83~92 참조.

첫째로 양자는 모두 권력을 총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일반화된 권력개념의 사용은 모든 권력관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권력중심부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력을 하나의 상품처럼 소유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의 산물이다. 다만 한편은 그것을 합법적 소유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편은 불의와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윈주의는 비록 이러한 입장을 크게 회색시켜 나가고 있지만 역시 주권(sovcreignty)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반화된 권력개념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¹⁰⁾ 이점을 마르크시즘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것은 권력을 국가기구(state apparatus)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코의 이론은 권력중심부의 부재와 그것의 분산, 순환, 해체를 주장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 점은 특히 마르크시즘을 공박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로 푸코가 문제삼는 것은 권력과 지식의 관계이다. 서구의 전통은 Plato적인 2분법에 입각하여 진리를 권력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양자간의 상호배타성을 강조해왔다. 마르크스주의 또한 이데올로기 논의에 입각하여 권력에 의한 진실의 왜곡과 은폐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상호보완적 결합관계를 지적하고 권력과 진리의 양립가능성을, 즉 권력과 결합한 지식이 이데올로기가 아님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권력과 결합되어도 여전히 지식은 진실을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권력의 효과를 바라보는 푸코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권력과 지식의 결합은 한편으로 억압과 지배의 수단이 되어져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발전과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양자의 결합은, 특히 그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일면을 고려할 때, 권력관계의 상호성과 권력에의 자발적 복종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¹¹⁾

셋째로 권력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권력관계를 주로 권력주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부적 수준에 있어서 권력의 출발이 비록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복잡한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 항상 변형되어지며 권력관계의 형성은 일련의 과정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력의 본질은 복합적 관계의 그물로서 파악되어야 하고 그 익명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권력의 기원이나 의도가 아니라 권력의 양태와 효과, 전략과 작동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취해져야 한다. 이것은 결국 권력개념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권력 그것은 제도가 아니며 구조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도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붙인 이름이다."¹²⁾ 사회현상의 logic은 의도와

10) 미국 다윈론자들의 입장과 푸코의 차이에 관해서는 M. Walzer, "The Politics of Michel Foucault", in D.C. Hoy(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New York: Basil Blackwell, 1986) pp. 54~55. 그리고 F.R. Dallmayr, *Polis and Praxis* (Cambridge: MIT Press, 1984), 제3장 참조.

11) 푸코는 자신의 연구의 목적이 권력의 야만성을 밝힘과 동시에 그것에 정당한 몫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M.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 95.

12) M.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trans. R. Hurley (New York: Random House 1978) p. 93.

결과의 불일치에 있으며 문제는 결과에 있다고 보는 그는 권력관계를 지향적이나 비주체적(intentional, but nonsubjective)이라고 말한다.¹³⁾ 현재의 권력관계를 사전에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권력의 목표를 명확히 조명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왜 지배를 원하는가를 묻지 말고 어떻게 지배가 행해지는가를 문제삼아야 한다. 권력의 주체는 권력효과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력관계의 비주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푸코는 그것이 환원론이나 결정론으로 이해되어서 안될 것임을 아울러 강조한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논리에 입각해 있다. 푸코는 알튀저식의 최종심급의 논리도 거부한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의 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현대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서 양진영간의 체제경쟁은 상호비방의 레토릭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진지하게 규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일탈된 권력의 형태들—예를 들어 파시즘이나 스탈린주의—에 대해 만족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강제수용소(Gulag)의 문제는 의식적으로 회피되거나 피상적으로 이해되었다.¹⁴⁾ 권력관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없이 국가기구의 해체만을 시도하는 사회변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20세기 역사의 교훈이며 1968년 5월혁명은 이러한 현대권력의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Ⅲ. 푸코의 Power/Knowledge론

1. Power/Knowledge의 방법론적 기초

푸코의 power/knowledge론(이하 P/K론으로 생략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후 프랑스사상의 흐름과 푸코철학의 위치, 그리고 푸코철학의 방법론적인 토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고찰할 필요가 있다. 2차대전후 프랑스 사상의 흐름은 사르트르와 메를로뵈프피로 대표되는 실존주의와 현상학, 레비스트로스이후의 구조주의, 그리고 데리다, 푸코등에 의해 모색되어진 후기구조주의로 편의상 삼분해볼 수 있다. 전쟁과 혁명, 대공황과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20C초 서구의 파행적 역사는 서구사회로 하여금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켰으며 새로운 사상의 출구를 재촉하였다.¹⁵⁾ 프랑스의 경우 1930년대에 훗설과 헤겔철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세대에 의하여 프랑스 실존주의와 현상학이 시작되었으며 그

13) Ibid., p.94.

14) 형정이나 구금·정신치료등을 이용한 새로운 권력기술의 등장에 대해 푸코가 조심스러운 연구를 시작하였을 때 그것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의 위세에 눌려 있던 전후 프랑스의 지적분위기와 일반사를 추구했던 Annal 학파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Foucault, Power/Knowledge, pp.110~111, pp.230~231.

15)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H.S. 휴즈, 현대프랑스지성사, 김병익譯(문학과 지성, 1981) 참조.

것은 앙가주망의 철학으로서 레지스탕스의 전통과 결합하여 전후 10년간 프랑스 철학의 지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 그것은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이른바 서구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자유의 철학은 의식의 명증성을 전제로 하는 데카르트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극단적 주관주의와 관념론의 한계를 노정하였다. 메를로뵈프의 지각의 현상학은 코기토의 문제를 세계내 존재로 완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체의 중요성은 포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인간을 의미부여의 주체로 파악되는 주체의 철학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사유방식으로서 구조주의가 1950년대 후반이후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라캉의 정신분석학, 롤랑바르트의 문예비평등을 통해 전개되었다.¹⁶⁾ 구조주의는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내재적 질서와 규칙의 산물로서 이해하려 하였고 현실의 배후에 놓여있는 본질적 구성요소들간의 결합방식을 밝혀내려 하였다.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행위주체를 사상시키고 구조의 역학을 강조하는 구조주의는 구조의 개념을 통하여 경험법칙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성을 추구함으로써 실증주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였다. 레비스트로스는 “세계는 인류없이 시작하였고 인류없이 종식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¹⁷⁾ 라캉은 “그것이 말하고 있다.”(Ça Parle)라는 표현으로 주체를 사상시켰다.¹⁸⁾

한편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¹⁹⁾는 마치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가 그러하듯이 구조주의속에서 등장하여 구조주의의 중요부분을 계승하면서도 자기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보안을 시도한다. 그것은 구조주의와 마찬가지로 전통철학의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지만 정형화된 법칙이나 이론, 지식에 대한 향수를 전통적 형이상학의 잔재로 간주하고 구조주의로부터 이것마저를 추방시키려 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후기구조주의의 논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해체주의는 불변의 요소, 개념, 원리를 모색하여 통일적이며 무모순적인 이론체계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전통적 형이상학의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해체(deconstruction)의 전략은 한 시대의 사상에 대해 공리나 규칙으로 작용하는 모든 개념들을 분쇄시키려는 계획을 말한다.²⁰⁾

메를로뵈프나 사르트르에 비해 한시대 젊은 층에 속하는 푸코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전후 헤겔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실존철학에 매혹되기도 하였다. 그는 실존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한때 프랑스 공산당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서구 이성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바슐라르, 깡귀엠 등의 새로운 과학사 인식을 접하면서 그는 1960년대에 들어서 사르트르식

16) 이에 관한 간략한 고찰로서 에디츠쿠르츠웨일, 구조주의시대, 이광래譯(중로서적, 1985) pp.3~14. 참조.

17) S.H.휴즈, op.cit., p.291.

18) 라캉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말을 완전히 지배하는 자율적 인간의 관념을 배격하고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여지는 것이다. J.Lacroix, 현대프랑스 사상의 파노라마, 정성진譯(담구당, 1985) p.259.

19)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계속성보다 차이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후기구조주의라는 말 대신 탈구조주의란 표현을 쓰고 있다. 김육동,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세계의 문학 55, 1990 봄, p.258.

20) 이광래, 미셸 푸코(민음사, 1989), p.62.

의 주체의 철학을 반대하고 모든 유형의 휴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²¹⁾ 이 시기에 나온 그의 저작들, 병원의 탄생(1963), 말과 사물(1966), 지식의 고고학(1968) 등은 구조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1968년 5월혁명을 계기로 푸코의 후기구조주의가 시작되며 감시와 처벌(1975), 성의 역사(1976)는 그 대표적 저서들이다. 그는 5월혁명이 보여주는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를²²⁾ 바라보며 권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하였고 노동현장을 넘어선 모든 종류의 소외와 일상적 삶을 문제삼기 시작함으로써 사적유물론의 편협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루카치이후의 서구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접근하게 된다. 푸코연구의 구조주의적 경향으로부터 후기구조주의적 경향으로의 변화는 그의 용어를 빌린다면 고고학(archeology)적 방법론으로부터 계보학(genealogy)적 방법론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방법론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지식의 고고학」(처음에는 구조주의 고고학이라고 하였다.)에서 그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주관주의 뿐만 아니라 기존 역사학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행한다.²³⁾ 푸코에 의하면 전통적인 사사사 연구는 표면적인 관념이나 의식의 전개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것은 특히 역사의 통시적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인과론이나 목적론적인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이 과거 실증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이며 이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행해지고 역사가 지나치게 남용되었다. 그러나 푸코의 고고학은 관념의 배후에 놓여있는 하나의 질서와 체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식의 질서에 있어서 불연속성(discontinuity)과 인식론적 단절을 강조한다. 푸코는 모든 지식을 하나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속에 위치시킨 후 시대간의 유사성이 아니라 차별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단절의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를 주장한다. 그는 쓰고 말해진 모든 형태의 표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담화 혹은 언술의 구조를 통하여 지식의 기본질서를 밝혀 하였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시대의 언술의 총체를 에피스테메(episteme)²⁴⁾ 언술의 규칙체

21) 이 과정에 대해서는 G. Raulet,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 A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Telos, 55(1983), pp.198~199 참조

22) 5월 혁명은 기존질서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으나 투쟁의 양상은 전통적인 혁명의 개념과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았고 계급투쟁의 성격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다양한 주장-예들들어, 여성해방, 교육제도 개혁, 환경보호, 반핵운동, 죄수의 권리 등-이 행해졌다. 프랑스 공산당(PCF)은 여기에 대해 비동조적이었으며 최초의 이주일동안 그들은 사태의 본질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건은 그들의 문제틀(frame of reference)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B. Smart, Foucault, Marxism and Critique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83), pp.6~8.

23) M.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 A. Sheridan (New York : Random House, 1972), pp.138~140 참조.

24) 에피스테메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M. Foucault, op.cit., p.191 참조.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에피스테메의 변이에 따라 4개의 시기-르네상스시대(1500~1660), 고전주의 시대(1660~1800), 근대(1800~1950), 현대-를 설정하고 있다.

지식의 불연속성과 규칙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에피스테메의 개념은 쿤의 패러다임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한 글로서 이광래, op.cit., pp.146~147 참조.

계를 아르쉬브(archive)라고 불렀다.²⁶⁾ 흔히 담화분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방법론은 담화의 대상, 진술의 양식, 개념설정, 전략의 형성이라는 4가지 구체적 범주에 관하여 「지식의 고고학」 제 2장에서 상론하고 있다. 푸코는 고고학적 방법론을 취함에 있어서 특히 가치중립적인 분석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68년 5월혁명이후 고고학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1970년 폴레즈 드 프랑스의 취임강연인 「담화의 질서」이후 계보학적 방법론이 제시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 발표된 「니체와 계보학, 역사」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계보학의 첫번째 특징은 **반과학주의**에 있다.²⁷⁾ 푸코에 의하면 거시적이며 총체적인 이론의 추구는 그 순간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삶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진정한 현실의 이해는 모든 종류의 구속과 형식에서 해방될 때 가능하며 거시적 과학이론의 횡포는 저지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체계화의 도그마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의 푸코의 반과학주의는 이론이 현실을 완전히 포섭할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로 그것은 현재의 역사, now & here를 강조한다.²⁸⁾ 푸코의 이론에는 앞뒤지식의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구별이 거부된다. 진리는 표면적 실체 그 자체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사물의 본질, 사건의 심층이 과대평가되어서 안된다. 세계는 나타난 그대로이며 무대뒤에 진실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계보학은 숨겨진 진리의 위상을 파괴하려 한다. 이점은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는 헤겔의 현실관과도 비슷하며 푸코는 플라톤식의 현상과 이데아의 2원론을 거부한다. 세계로 그것은 전체(whole)의 카테고리를 거부한다.²⁹⁾ 푸코는 사회, 계급, 국가, 민중이라는 물화된 개념들을 거부하며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삶 그 자체로 본다. 이런 점에서 그는 명목론자(nominalist)이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일단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보학은 언술의 형성과정에 개입하는 권력의 작용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역사는 보편적 이성의 발전이 아니며 하나의 지배로부터 다른 지배로의 권력의 변신과정이라고 푸코는 말한다. 따라서 푸코의 계보학은 서구이성의 배후에 작용하는 권력의 메카니즘을 밝혀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으며 계보학의 모든 특징은 권력문제의 논의과정에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푸코의 권력에대한 논의는 한편으로 고고학적인 분석태도—서술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여전히 고집함으로써 그의 권력론은 현실비판적인 동시에 가치중립적인 이중의 양상을 보여주며 이 때문에 푸코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후기구조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26) Ibid., p.128.

27) M. Foucault, *Power/Knowledge*, pp.80~84참조.

M. Foster는 푸코의 이러한 태도를 E.P.Thomson의 「이론의 빈곤」(The Poverty of Theory, 1978)과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한다. 톰슨에게 있어서 이론에 대한 관심은 그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관심보다 못하다. M. Foster, op.cit., p.88.

28) H. Drefus and P.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82), pp.108~110 참조.

29) M. Gane, *Towards a Critique of Foucault*,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6), p.159.

D.C. Hoy(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p.55 참조.

있는 계보학의 논리에 입각해 있는 푸코의 새로운 패러다임 power/knowledge론의 의미내용을 다음에 검토해 본다.

2) Power/Knowledge론의 의미내용

첫째 푸코에 의하면 권력은 지식속에서 지식은 권력속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양자의 관계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해온 종래의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P/K에 있어서 dash의 의미는 권력과 지식의 불가피한 상호 결합관계를 말한다.³⁰⁾ (이러한 상태의 권력을 푸코는 disciplinary power라고 표현한다. 학문과 결합한 권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혼용적 권력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양자는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서로를 내포하고 있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권력과 지식이 서로를 직접적으로 의미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의 장의 상호 연관적 구성 없이는 어떠한 권력관계도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권력관계를 전제하고 동시에 이를 구성하지 않는 어떠한 지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³¹⁾ 푸코는 이러한 권력과 지식의 결합관계를 chiasm적 구조라고 부른다.³²⁾ 푸코이론중 가장 급진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³⁾ 푸코의 P/K의 구조론은 단순한 서술의 차원을 넘어 더 나아가 평가적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식은 권력과 결합되어도 그 효력을 강화시킬 뿐 여전히 진실을 유지할 수 있다. 지식은 권력의 도움을 통하여 더 많은 사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권력과 결합된 지식의 이데올로기화를 주장하는 것은 일면적인 논리이다. 마찬가지로 지식과 결합된 권력은 단순한 탄압이상의 것이며 합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근대권력은 단순히 억압과 강제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합리성에 대한 호소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근대권력은 대상에 대하여 안전과 복지, 행복을 책임짐으로써 이른바 목자적 권력(pastoral power) -기독교적인 목자와 양떼의 관계-을 가능케 해왔다.³⁴⁾ 권력과 지식의 결합은 서로를 상호 건설적인 방향으로 보완시켜줄 수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푸코에 대한 니체의 영향 -권력의지론-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푸코는 억압과 은폐만을 권력의 본질로 상정하는 마

30) T. Keenan, "The Paradox of Knowledge and Power," *Political Theory*, 15(1987.2) p.13.

31)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rans. A. Sheridan (New York : Random House, 1977) p.27.

32)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푸코 철학에 미친 메를로뽕띠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M. Merleau-ponty,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rans. A. Lingis (Evanston : Northwestern Univ. Press, 1969). pp.263~264 참조.

33) H. Dreyfus and P. Rabinow, op.cit., p.114.

34) M.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H. Dreyfus and P.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 Chicago Univ. Press, 1982) pp.213~215 참조.

르쿠제와 프로이드에 반대한다. 그러나 푸코의 권력론은 2개의 축을 갖는다. 권력의 통제기술을 폭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과되어왔던 권력의 생산적 효과를 지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과 지식의 생산적 결합에 대한 강조는 권력과 지식의 억압적 기제를 규명해내는 작업과는 별개의 것이며, 후자는 푸코 권력론이 기도하는 또다른 주제이다.

둘째로 P/K론은 권력중심의 부재를 강조한다. 폭력의 배제와 더불어 현대의 권력은 국가기구에서 벗어나 학교와 병원, 감옥, 병영, 공장등 다양한 층위속으로 침투되었고 점점 비가시적이 되었다. 권력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권력에 대한 일련의 명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⁵⁾ 권력에 대한 분석은 국가주권, 법률의 형태, 또는 지배전체를 주요한 논점으로 삼아서 안된다. 이것들은 결과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하는 다양한 힘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수많은 지점으로부터 파생되며 언제나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권력관계의 논리를 최종적으로 주관하는 본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권력망 전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관계는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권력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 동질적인 지배세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권력을 잡는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권력관계는 끝없는 네트워크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배니 지식의 독점이니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인물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과정, 또는 권력관계가 전도되는 과정, 아니면 이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의 순간적인 단면에 불과하다. 푸코는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관계의 본질을 밑으로부터의 현상(bottom up)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³⁶⁾ 권력의 모세관적(capillary) 현상이라고 본다.³⁷⁾ 권력의 편재적 속성은 특정세력의 단일지배를 불가능하게 하고 권력관계의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것은 권력관계를 비주관적이며 부분적 성격의 것으로 만든다. 누구도 지배하지 않으나 누구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지배하는 사람도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 익명의 거대한 전략이 다원주의의 이상을 배신하여 모습을 일변시킬 때 그것은 베버가 우려한 쇠창살 사회의 등장이며 푸코가 경계하는 원형감옥사회이다. 푸코는 심지어 자선단체나 도덕단체까지도 사실상 거대한 감옥형태의 조직망이 되어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행할 수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⁸⁾

1968년 5월 혁명 이후 서구의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나 체제만을 문제삼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부터 선회하여 일상생활(everyday life)비판을 중요한 주제로 삼게 되었고 기술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종류의 소외와 모든 비민주적 조직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이것은 메를로 뽕띠 이후 2개의 중요한 그룹 즉, 「argument」 그룹의 르페브르와 모린, 코스타스 악셀로스

35) M.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1, Trans. R. Hurley(New York : Random House, 1978), pp.92~95.

36) M. Gane, Towards a Critique of Foucault(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88) p.152.

37) F. Dallmayr, Polis and Praxis, p.80.

38)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rans. A. Sheridan(New York : Random House, 1977) p.298.

등과 「socialism ou barbarie」 그룹의 르포르트와 카스토리아디스등에 의해 계승되었다.³⁹⁾

셋째로 P/K론은 권력현상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푸코는 마치 하버마스처럼, 인간행위의 영역을 언어와 의미, 기술과 생산, 권력관계 셋으로 나누고 각 영역간의 상호독립과 교호를 주장한다.⁴⁰⁾ 권력현상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19C의 정상화과정은—특히 노동자에 행해진 통제과정에 주목할 때—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권력현상 자체에서 연유한 것이며 경제로부터 비롯하는 인과론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통제라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이 초래한 고유한 행로인 것이다.⁴¹⁾ 푸코는 처벌이나 성에 관한 담화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정신병동이나 병영, 감옥등의 예를 통하여 새로운 지배관계의 본질이 마르크스가 파악한 노동에 대한 착취와 소외의 기계와는 다른 양상의 것임을 보이려 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C이후 유럽이 보여준 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노동생산성의 재고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대권력이 보여주는 신체에 대한 관심 그 자체에서 비롯하였으며 감옥과 감옥을 원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통제기술은 근대권력의 내재적 메카니즘의 산물이라고 푸코는 말한다. 따라서 푸코는 자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강제수용소의 본질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 억압된 노동과정을 인정하면서도 권력의 문제를 그 자체로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푸코의 주장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경제적 모순으로부터 권력의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는 베버에서 하버마스에 이르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한 전통에 매우 접근해 있다. 전체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푸코의 논평은 권력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명한 프랑크스 신문의 어느 작가가 언젠가 자신의 놀라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권력의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가? 다른 문제를 고려함 없이 그것이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이 작가의 놀람은 나를 경악시킨다. 나는 이러한 의문이 20C에 들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가정에 회의적이다. 나는 단지 2개의 병리학적 형태—2개의 권력의 질병—만을 언급하겠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가 그것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그 역사적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결코 원초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들은 다른 대부분의 사회에 이미 존재해왔던 메카니즘을 사용하고 확장시켰을 뿐이다.”⁴²⁾

39) M. Foster,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Cambridge : Polity Press, 1984).

조광재譯, 푸코와 마르크스주의 (민맥, 1989) p.29~30. 푸코는 이점에서 자신의 입장과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동일시 하였다.

40) M.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H. Drefus and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 Chicago Univ. Press, 1982), p.218.

하버마스는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에서 노동, 의사소통, 지배의 세 차원을 구별하였다. J.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Boston : Beacon, 1971).

41) M. Foucault, History of Sexuality pp.125~126.

42) M.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H. Drefus and P.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p.209.

넷째로 P/K론은 인간의 신체(body)를 집중적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푸코는 인간의 신체가 현대사회의 권력관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행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려 하였고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정치적 테크놀로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밝히려 하였다. 그는 신체위에 작용하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잠재적 결합이야말로 서구사회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메카니즘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권력은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인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권력메카니즘의 궁극적인 분석대상은 인간이다. 모든 사회영역에서 비정상(anomaly)을 제거하고 통제와 감시를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신체와 종(species)으로써 인류에 대한 정밀한 연구분석이 요청되어져 왔다. 신체에 대한 규율과 인구의 통제는 현대권력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인간의 육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유순한 신체(docile body)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은 동작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분석되어지고 공중위생, 성병, 인구분포, 주택문제, 평균수명, 임신등의 문제가 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육체는 적절한 테크닉이 가해질 경우 완전히 수정 가능하며 육체는 사회에 의하여 재구성되고 조종될 수 있음을 푸코는 강력히 암시한다. “그러나 신체는 또한 직접적으로 정치의 장에 연결되어 있다. 권력관계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장악한다. 권력관계는 신체에 투자하고, 기록하고, 훈련시키며, 고문을 한다. 그것은 과업을 이행하고 제식을 행하며 신호를 보낼 것을 강요한다.”⁴³⁾ 푸코의 중요한 업적은 육체가 현대사회에서 권력작용에 대해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분리해내고 개념화시켜 나가는 데 있으며⁴⁴⁾ 이것은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의 핵심적 논제이기도 하다. 신체에 대한 푸코의 관심은 육체의 순응성을 주장하였던 니체의 철학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근대불란서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여중의 하나로서 평가되는 메를로뽕띠의 살아있는 육체(le corps propre)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인간과학이 발달은 근대권력에 의해 힘입은 바 크며 여기서 이른바 권력의 미시물리학이 탄생하였고 생명체정치학(bio-politics)이 성립되었다.

IV. Power/Knowledge론 분석의 사례연구

푸코는 합리적인 사회통제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권력과 결합하는 일군의 지식체계를 human science라고 부르고 있다. (자연과학과의 구별을 뜻하는 종래의 개념 사용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푸코가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분석한 주제는 성의 역사와 감옥제도의 변천이다. 여기서 푸코는 감시와 통제, 적응, 순화를 위해 동원되는 각종 지식체계와 테크닉들을 역사적 자료

43)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25.

44) H. Drefus and P. Rabinow, *op. cit.*, p.112.

45) *Ibid.*, pp.166~167. pp.245~246 참조.

사무엘 토데스는 1963년 그의 하바드대학 박사학위논문 〈세계의 물질적 주체로서 인간의 신체〉에서 이 문제를 논하였다. *Ibid.*, p.112 재인용.

에 의거하여 상술하고 있다.⁴⁶⁾

1) 형벌제도

18세기까지 서구의 형벌제도는 체형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법률의 위반은 군주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범죄자에게는 공개적인 고문이 가해졌다. 범죄자의 육체는 찢겨지고 파괴되었다. 그것은 군주의 절대권력의 과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잔인한 처형은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계몽주의시대의 휴머니스트들은 군주의 자의적이며 과도한 권력행사를 비판하고 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근거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⁷⁾ 그들은 고문이 폐지되어야 하며 처벌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명확히 규정된 법조문을 통해 범죄의 댓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했으며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강제임을 합리적으로 보이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범죄자의 영혼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처벌대신 범죄자의 회개와 참회를 위한 도덕적 감화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회개소(penitenciers)와 교화작업장은 보수가 지불되는 공개적인 노동과 도덕적 훈계과정을 통해 범죄자로부터 부드러운 영혼, 선의의 회복을 기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푸코는 휴머니스트들의 관대함을 일종의 권력의 경제학으로 파악한다.⁴⁸⁾ 그들은 군주의 권력에 저항했지만 사회계약론의 논리에 의거하여 범죄자를 사회전체의 적으로 규정하였고 규제의 대상을 오히려 확대시켰다. 그들의 도덕주의는 형벌의 가혹성을 완화시켰지만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수준높은 사회통제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정교한 법조문을 구성하고 적용시키기 위하여 범죄자와 범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되었고 여기서 행해진 일련의 연구는 얼마 후 등장하게 될 인간과학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1790년 개소된 필라델피아의 월넛스트리트 교도소는 근대감옥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⁴⁹⁾ 근대감옥은 새로운 형벌제도로써 훈육(discipline)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훈육의 원리는 죄

46) 푸코의 연구에 대해서 사료선택이나 해석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A. Megill, 조광희譯, "역사학자들에 의한 푸코의 수용", 김현(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문학과 지성, 1989) pp.304~337.

47) 푸코는 그 대표적 인물중의 하나로 베카리아(Becaria)를 들고 있다. 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는 1764년 「범죄 및 형법논고」라는 저서를 통하여 새로운 법률체제와 처벌제도를 주장하였고, 그것은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푸코가 거명하는 구체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75참조.

48)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101.

49) 필라델피아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Ibid, pp.123~126 참조.

수감자의 고립과 개별화의 방식을 둘러싸고 또 하나의 근대감옥 모델인 어번(Auburn) 모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비교논쟁에 대해서는 pp.237~239 참조.

수의 영혼에 대한 도덕적 감화 대신 죄수의 신체를 규율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인다. 신체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야말로 인간의 형태변화-복종과 순응-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근대감옥은 범죄의 예방과 교정보다 죄수의 훈육자체를 자신의 *raison d'être*로 삼게 되었다. 죄수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의 권리가 감옥에 부여되었고 권력의 의지에 굴종하는 유순한 신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대감옥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다. 죄수들은 격리, 수용, 감금된 후 모든 행위는 엄격한 시간적 공간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감방은 감시를 위해 적합한 공간배분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수감자의 행동은 몸짓하나 자세하나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만 했다. 하루의 일과는 치밀하게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 진행되며 작업장에는 테일러주의적 원리가 도입되었다.⁵⁰⁾ "첫번째 복소리가 들리면 죄수들은 간수가 감방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조용히 옷을 입어야 한다. 두번째 복소리가 들릴 때 죄수들은 옷입는 것을 끝내고 침구를 정리해야 한다. 세번째 복소리에 그들은 아침기도를 올리기 위해 줄맞추어 교회당으로 가야 한다. 각각의 복소리 간격은 5분이며..."⁵¹⁾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감시의 기술이 고도화되었다. 감시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죄수들에 대하여 시선의 내면화 효과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감시방법이 고안되었다. Bentham의 파놉티콘(*panopticon*)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⁵²⁾ 또한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수단으로 훈련(*exercise*)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인간의 신체를 기능에 따라 분리시킨 후 반복과 숙련을 강요하는 훈련은 인간을 조작가능한 순응적 존재로 만들어 나갔다. 시험(*examination*)과 검사는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는 의식이다.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 개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관찰, 기록, 분류되었다. 개인은 문서속에 객체화되었고 문서보관소는 인간과학의 요람이 되었다. 근대 사회과학은-특히 심리학, 범죄학, 통계학, 위생학등은-인간의 규율에 대한 권력의 관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수한 권력기관(감옥, 법원, 병원, 군대)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었다.⁵³⁾ 개별과학(*discipline*)이라는 용어 자체가 훈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disciplinary power* 역시 지식과 결합한 권력, 훈육적 권력의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푸코가 궁극적으로 말하려 하는 것은 감옥이 아니다. 그의 진정한 표적은 보이지 않는 감시탑이 되어버린 현대권력의 본

50) H. Drefus and Rabinow, *op.cit.*, p.156.

51) 김성언, "미셀 푸코에 있어서 지식과 권력",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p.51.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소개하는 18C 파리 청소년 범죄자 숙소의 규칙 제18조이다.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6.

52) 파놉티콘은 원형으로 설계된 감옥으로서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주위에 여러개의 작은 감방이 있다. 감시탑은 어둠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며 감방을 향해 빛이 지나간다. 수감자는 감시자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그는 감시자를 보지 못한다. 수감자는 감시자가 탑 속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감시는 지속적 효과를 갖는다. 감시자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원형감옥은 단순한 감시의 효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과정에 의한 고도의 실험실 역할까지도 기대되었다. 이러한 사회는 결국 감시자까지 감시받게 만든다. 감시자는 고착된 질서의 일부이고 그 역시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p.200~204참조.

53) H. Drefus and P. Rabinow. *op.cit.*, p.160.

질이다. 부르조아 사회의 합리주의는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을 유희의 망속에 가두어 놓았다. 감옥은 유희의 순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⁵⁴⁾ 현대의 권력은 병원과 학교, 공장과 감옥, 병영과 성당 모든 제도속에 내재하고 있다. 감옥을 모델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모든 제도는 사실상 거대한 감옥형태의 감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푸코는 말한다.

2) 성의 역사

고전주의시대에 있어서 성은 엄격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었다. 교회법과 민법, 기독교 교서는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였다. 사회는 성에 대한 담화를 금기시하였고 그것은 절제와 신중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의 언어화현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사람들은 성을 끊임없이 거론하고 의식하게 되었다.⁵⁵⁾ 중세이래 서구사회가 진실을 끄집어내는 중요한 의식의 하나로 사용해왔던 고해(confession)의 문화가 이 시기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⁵⁶⁾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혹은 장엄한 의식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고백하였고 고백을 강요받았다. 기독교의 고해성사는 특히 성을 고백의 중요한 재료로 삼았으며 그것은 성에 가해지는 억압에 비례하여 성에 대한 합법적인 담화의 출구가 되었다. 인간의 욕망과 관능에서부터 미세한 육체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언어화되었다. 성은 세련된 방식으로 담화의 질서속에 편입, 확대되었다. 고백을 하는 자와 고백을 듣는 자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되었고 고백은 사회통제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백의 의식 자체가 아니라 고백의 결과였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 숨겨졌던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인간은 점차 권력의 그물망속에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서구사회는 본격적으로 성을 거론하였다.⁵⁷⁾ 이번에는 주변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의 문제가 과학의 이름으로 논의되었다. 세련된 고백의 기술에 의하여 인간의 쾌락은 끊임없이 기록되고 분류되고 해석되었다. 강박관념과 여성의 히스테리, 어린이와 범죄자의 성, 동성연애, 변태성욕, 매춘 등의 문제가 새롭게 성의 담화속에 편입되었으며 신체에 대한 생물학적 분

54) M. Foucault, op.cit., p.302. M. Foster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감시 메카니즘으로 컴퓨터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푸코이론을 현대사회의 정보양식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해하는 그는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 기술의 확산이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M. Foster, op.cit., pp.119~137.

55) 푸코는 근대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성에 대해 억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성의 역사」의 중요한 주제중이다. 푸코의 억압가설(Repressive Hypothesis)에 대한 비판은 Foucault, 「History of Sexuality」, 제2장을 참조할 것. 이 책은 억압가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프로이트, 마르쿠제, 라이히 등을 거론하고 있다.

56) M.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pp.57~73.

고해성사의 규칙은 1215년 라뜨랑 공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Ibid., pp.115~116 참조.

57) Ibid., pp.36~49.

석으로부터 정신의학에 이르는 성의 과학은 인간을 더욱 정교하게 해부하려 했고 인간의 욕망은 꿈속까지 추적되었다. 다양한 축량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육체는 별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근대권력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자원으로 등장한 인구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인간의 성과 신체에 관한 일련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영양과 질병, 출산과 임신, 위생과 성병, 평균수명과 결혼연령 같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근대권력을 성의 매개로 지식과 결합하여 민중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었다.

성과 결합된 권력은 여러가지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관계의 재편성과 자본주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생산성을 재고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다른 계급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예측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푸코에 의하면 근대사회가 보여주는 성에 대한 관심과 집착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계급의 자기보호와 강화라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출발했으며 그것은 결국 인생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⁵⁸⁾ 부르주아지의 건강과 활력과 종족의 본능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와 성에 가치를 부여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이들 계급의 자기 인식은 육체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성의 개발을 자기강화가 아니라 지배의 수단으로 파악하려는 모든 가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그것은 결과적인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성에 관한 power/knowledge는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의 순수성과 인종의 승리를 주장하는 나찌의 신화에 이르면 우리는 우생학적 권력의 극단적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⁵⁹⁾ 그러나 성이 권력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푸코는 성의 역사를 단순한 억압의 역사, 민중에 대한 통제로만 보지 않는다. 성에 관한 power/knowledge는 인간을 전염병과 기근에서 해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건강한 성생활과 견실한 가족제도를 가능케 했으며 서민을 위한 의료시설, 공중보건, 주택정책등의 사회복지를 실현시켰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였고 인류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신민들을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생명의 범위안에서 그들을 장악한다. 권력이 인간의 육체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살육의 위협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떠맡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⁶⁰⁾

5. 푸코 이론의 평가

푸코의 P/K이론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고 시사적인 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58) Ibid., pp.122~127.

59) Ibid., p.149.

60) M. Foucault, 성과 권력, 박경자 譯(인간사, 1989). p.192.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푸코이론의 한계일 수도 있다. 즉 권력과 지식의 결합을 긍정하고 중앙권력의 부재를 주장하며, 권력현상의 자율적 성격을 강조함은 그가 신보수주의, 신다윈주의자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소이이기도 하다.⁶¹⁾ 특히 푸코는 존재와 당위의 차원에 대한 확연한 구분을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의 작업이 서술적이며 가치중립적인 현실분석이고 나아가宿命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받기도 한다.⁶²⁾ 더구나 권력과 지식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평자들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처방제시의 결여가 곧 기존질서의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야말로 비판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푸코의 이론은 비판적 의의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력과 지식의 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의 축이라면 권력과 지식의 억압적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는 푸코권력론의 또 하나의 축이다. 즉 전자가 후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익명화되는 현대권력의 추세를 우려하고 인간의 해방을 바라는 강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철학은 오히려 권력비판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푸코이론의 비판적 함의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⁶³⁾ 혹자는 푸코의 P/K이론을 곧그람시적 헤게모니 비판의 연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⁶⁴⁾ 그러나 실령 푸코의 이론을 현실비판적인 측면에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크푸르트학파적인 현상유지의 보수적 이데올로기 비판과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푸코의 경우 도구적 이성이라는 합리성의 이면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 전통인 합리성에의 신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감옥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푸코는 보다 근본적인 에포케(epoche)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

61) 예를 들어 F.R. Dallmayr는 「Polis and Praxis」의 제3장에서 'pluralism old and new'라는 소제목하에 푸코를 논하고 있는데 new pluralism 이것은 그의 푸코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푸코를 신보수주의자라고 평한다. 데이빗호이,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광래(번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1989). p.137.

62) F.R. Dallmayr, Polis and Praxis (Cambridge: MIT Press, 1984), p.90.

63) B.Smart가 대표적이며 그는 푸코이론이 마르크스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판형식을 제공하여 급진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한다. B.Smart, "The Politics of Truth and The Problem of Hegemony" in D.C.Hoy(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p.158.

B. Smart, Foucault, Marxism and Critiqu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3) p.137. M. Foster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푸코를 이해하고 있다.

M. Foster, Marxism and History (Cambridge: Polity Press, 1984) 참조.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국내학자로는 San Jin Han, The Logic of Social Formation towards a Synthesis of Althusser, Foucault, Offe, Habermas, Current Perspective in Social Theory, vol.1. 1980. p.186 참조.

64) D.C. Hoy(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New York: Basilblackwell, 1986) p.158 참조.

라서는 반문명적이고 더 나아가서 아나키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⁶⁵⁾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외에도, 푸코의 권력론은 현대사회의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적 경향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국가관료기구를 간과하고 주변적 집단과 예외적 상황을 중시함으로써, 지역화 전략을 통한 역설적인 일반화의 시도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겠다. 즉 권력개념의 외연을 너무 확대시키고 주변적 현상 분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본격적인 정치권력론의 정체성(identity)을 상실케하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된다면 지역화된 투쟁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무대에 초점을 맞추는 푸코의 전략은 기존 권력론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푸코의 P/K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살펴보자. 푸코의 P/K론이 갖는 일차적 의미를 상기해 볼 때 그것은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반마르크스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⁶⁶⁾ 그것은 권력의 본질을 경제적 영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중앙권력의 존재를 또한 거부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 권력의 중심부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제 영역에서 행해지는 동시적인 노력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추상과 일반이 아닌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을 행하라. 동질적인 지배세력을 상징하는 투쟁은 환상이다. 이데올로기나 허위의식을 운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실자체가 진실의 일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모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핵의 문제, 컴퓨터의 문제를 이야기하라. 여기에 와서 푸코의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종말'의 논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진다. 푸코는 우리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편적 지식인(universal intellectuals)이 아니라 특수한 지식인(specific intellectuals)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푸코에 의하면 볼테르를 원형으로 하여 마르크스에 이르는 법률가, 문필가 중심의 일반가집단 보다는 다아윈부터 시작되는 일군의 과학자들(특히 원자과학자 Oppenheimer를 예로 들고 있다.) 이야말로 인류의 장래를 걸머지고

65) D.C.Hoy(ed.), op.cit., p.60. Merquior는 푸코가 2가지 점에서 neo-anarchism적이라고 말한다. 첫째로, 그는 19C 아나키스트와는 달리 反유토피아적이며 둘째로 과학을 거부하고 비합리주의와 연계되고 있다. Merquior, J.G., Foucault(London: Fontana Paper Books, 1985), pp.155~156.

66) 푸코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행해지고 있다. 생산양식과 자본의 논리를 외면함으로써 해서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전면적으로 비판받는가 하면 양자의 부분적인 접합을 모색하고 마르크스주의의 틀로서 푸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양자의 관계를 상호 충돌적인 것으로 설정하느냐 혹은 보완관계로 설정하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논리의 문제이다. 필자는 마르크스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을 푸코가 이론화 한것은—마크 포스터의 용어를 빌린다면 생산양식에 대한 정보양식의 분석—물론 보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후자의 비중이 과도해질 때 그것은 곧 상충관계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푸코의 사상이 급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反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해석의 구체적 자료에 대해서는 D.C.Hoy 책 pp.157~158, p.172 참조.

있다.⁶⁷⁾

푸코의 권력비판이 비정치적이며 비계급적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마르크스주의가 간과하였던 영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푸코가 시도하는 근본적인 에포케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둘 때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푸코의 P/K론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탈이데올로기의 논리와 비마르크스주의적 급진주의의 이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7) Foucault, *Power/Knowledge*, pp.127~19. 이러한 푸코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시대는 오히려 보편적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예로서 M. Walzer, "The Politics of M. Foucault", in D.C.Hoy(ed.), *Foucault: A Critical Reader*, p.67 참조.

참 고 문 헌

- Bell, R., *Political Power : A Reader in Theory and Research*(New York : The Free Press, 1969).
- Connolly, W., "Disipline, Politics, Ambiquity," *Political Theory*, 11 (1983.8).
- Dallmayr, F.R., *Polis and Praxis*(Cambridge : MIT Press, 1984).
- Drefus, H. and Rabinow, P.,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 Chicago Univ. Press, 1982).
- 서우석 譯,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나남, 1989).
- Foucault, M., *The Order of Things*(Nww York : Random House, 1970).
- 이광래 譯, *말과 사물* (민음사, 1987).
- Foucault, M.,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 A. Sheridan (New York : Random House, 1972).
-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Trans. A. Sheridan (New York : Random House, 1977).
- Foucault, M.,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I, Trans. R. Hurley (New York : Random House, 1978).
- 박정자 譯, *성과 권력* (인간사, 1989).
- Foucault, M., *Power/Knowledge :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New York : Pantheon Books, 1980).
- Foster, M., *Foucault, Marxism and History*(Cambridge : Polity Press, 1984)
- 조광제 譯, *푸코와 마르크스주의* (민맥, 1989).
- Foster, M., *Existential Marxism in Postwar France*(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2).
- Gane, M., *Towards a Critique of Foucault*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86).
- Hooke, A. E., "The Other of Others; Is Foucault's Antihumanism Against Human Action?" *Political Theory*, 15(1987.2).
- Horowitz, G., "The Foucaultian Impasse; No Sex, No self, No Revolution." *Political Theory*, 15(1987.2).
- Hoy, D. C. (ed.), *Foucault : A Critical Reader*(New York : Basilblackwell, 1986).
- Keenan, T., "The Paradox of Knowledge and Power," *Political Theory*, 15(1987.2).
- Lukes, S., *Power : A Radical View*(London : Macmillan, 1974).

- Merquior, J.G., Foucault (London : Fontana Paperbooks, 1985) .
- Philip, M., "Foucault on Power", Political Theory, 11(1983.2) .
- Raulet, G.,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Telos, 55(1983) .
- Sang Jin Han, The Logic of Social Formations : Toward A Synthesis of Althusser,
Foucault, Offe, and Habermas, Current Perspective in Social Theory, vol.1, 1980.
- Smart, B., Foucault, Marxism and Critique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83) .
- 김성언,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과 비판의 의미."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이광래, 미셸 푸코 (서울 : 민음사, 1989)
- 홍성민, "권력개념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Summary

A New Approach to Theory of Power — A Study on Foucault' Power and Knowledge —

Jang Won-seok

In this paper, I discussed Foucault's effort to rethink the nature of the modern power by means of the new paradigm of power/knowledge. I situated Foucault's conception of power/knowledge in relation to other attempts to clarify the nature of power, particularly, the Oxford social theorist Steven Lukes.

To begin with, I briefly summarized Foucault's genealogical method and strategies of deconstruction that reject the holistic philosophical tradition of constructing a grand theory that can explain the entire social reality and then, examine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aradigm-compatibility of power and knowledge, ubiquity of power, autonomy of power relation, human body as the object of power.

I also examined the two case studies of power/knowledge analysis illustrated in 「Discipline and Punish」 and 「The History of Sexuality」. In these books, Foucault tried to clarify the intimate relationships of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science and the modern power's concern for discipline. And he analysed various kinds of controlling mechanism of power, for example, panopticon, confession and so forth.

The important implication of Foucault's theory is that change does not occur without resisting injusti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s and the battle can be won only by the continued efforts of the individual combatants.

This paper ends with a short review of the comments of the Foucault's critics. I concluded that in spite of some defects and problems, Foucault's theory nevertheless capture something of reality of contemporary society.